



포이에마[예수교회]

가정예배 순서지

찬양 | 주가 일하시네



주가 일하시네

기도 | 하나님, 오늘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게 하시고,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고린도후서 1:3~6

✦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고 말하는 말씀이에요.

[개역개정] ³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⁵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⁶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

[쉬운성경] 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.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,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. 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,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. ⁵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,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. ⁶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,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,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.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.



질문나눔

1.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? (4절)
2. 그에게 넘쳐나는 어려움만큼 또 넘쳐난 것은 무엇이었나요? (5절)

삶의 이야기

1.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있나요?
2.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?
지금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?

축복 | **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. ()이/가 받은 위로는
또 다른 위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길 축복해!**

마침기도 | 하나님,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. 저희도 그동안 많은 위로를 받았습시다. 우리 가족이 그 위로를 품고만 있지 않고 힘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**2번**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



포이에마[예수교회]

가정예배 순서지

찬양 | 마음이 상한 자를



마음이 상한 자를

기도 |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다립니다.
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,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닮아 살게
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 읽기 | 고린도후서 4:7~9

- ❖ 보배가 값싼 질그릇에 담겼다는 비유로,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말씀이에요.

[개역개정]

⁷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⁹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

[쉬운성경]

⁷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. ⁸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놀리지 않으며,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. ⁹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,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.



질문나눔

1. 7절에서 보배는 어디에 담겨 있다고 하나요?
2.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나요?

삶의 이야기

1.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?
못하는 것, 자신 없는 것을 솔직하게 나눠봅시다.
2. 하나님은 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쓰실까요?

축복 | ()이/가 질그릇처럼 약해도 괜찮아.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
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축복해!

마침기도 | 하나님, 우리는 약하지만, 우리 안에 보배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. 우리 가족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,
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.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1.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
2번 읽습니다.
2.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
눈으로 **1번** 읽습니다.
3.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